

# 1월의 기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1. 2018년 한 해에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성회가 이뤄지도록 도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여 주옵소서.

2. 오는 2019년 기해년에도 계속해서 DCEM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3.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4.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5.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 (최용우목사), 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김정환, 김태승,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 이태원 내과의원, 한사랑순복음교회(박유성목사), Michelle McQueen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 찢어진 성소의 휘장

어원 루처 목사는 「왕이 오신다」라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당시, 목사가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안면이 있던 한 비밀 경호대 요원이 찾아와 대통령을 만나려면 자기와 함께 들어가야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받고 들어가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목사는 그 비밀 요원과 함께 백악관으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경호원들이 이 비밀요원과 함께 들어가니 다른 번잡한 조사 없이 수많은 검문 절차를 쉽게 통과 시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원 루처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과 같이 가면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저할 것 없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가면 죄지은 그대로, 못한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2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변화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휘장을 찢으시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과 고난당하심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 막았던 휘장을 찢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December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 조용기목사의 지나온 발자취 (IV)

## “여의도순복음교회” 시절



여의도로 이전한 이후, 교회는 급속도의 수직적인 성장을 보였다. 1979년에는 10만 성도를 돌파했고, 1981년에는 2배로 증가한 20만 성도가 되었다. 교회의 내적 성숙과 교육을 위해 제 1, 2교육관을 세우게 되었으며, 선교센터를 세워 선교사를 훈련시켜 파송하여 해외선교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교회 명칭을 현재의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바꾼 1984년에는 40만성도가 되었으며 1992년에는 70만명을 돌파하였다. 거리가 먼 지역에 지성전을 건립하기 시작, 지역사회 복음화의 효율적 방편으로 여러 교회를 독립시키게 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해외 선교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갔다. 아시아에서 중남미까지, 미국에서 모스크바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갔다. 내부적으로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성도 70만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대 교회’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국내 유일의 기독교 종합일간지 국민일보를 창간하면서 문서 선교 사역도 본격화했다.

1983년 8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전일본선교대회, ‘일본 1000만 구령의 초석’으로 꼽힌 이 행사는 당초 300명 안팎 정도 모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10배가 넘는 3000여명이 몰리면서 일본 전역을 놀라게 했다. 86년 조용기 목사는 홍콩 몽콕스타디움에서 홍콩 기독교 사상 최대 성회를 인도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 지역 성회에서도 사상 최대 집회 기록을 갈아치웠다.

90년대 들어서는 동·서독 통일을 비롯해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가 이어졌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공산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가

하면 성경 및 구호품을 보내면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공산주의 체제에 길들여져 있는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회는 좀처럼 쉽지 않았다.

우여곡절을 거쳐 조 목사는 92년 6월 러시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에서 대성회를 개최했다. 연인원 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만 5000여명이 결신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앞서 조 목사는 같은 해 3월 도미니카 산토도밍고에서도 연인원 4만여명을 대상으로 교역자 세미나 및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밀려드는 성도들을 수용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82년 대성전 지하 1층에 이어 바울성전 등 4개 예배당을 증축했다. 85년 8월 2만 5000명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81년 20만명이었던 성도는 89년 50만명으로 늘었고, 96년엔 70만명을 돌파했다.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지속적인 성장은 교단 분열과 교리 논쟁, 이단 시비를 극복하면서 일군 값진 열매였다. 80년대 중·후반은 조 목사에 대한 국내 일부 교단의 교리 논쟁 등이 불거진 때였다. 조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 및 교리 논쟁 등은 신학적 문제라기보다는 교단 간 발생하는 모종의 알력, 시기와 질투 등 지엽적인 것이었다. 결국 문제를 제기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는 94년 제79차 정기총회에서 별도 연구위원회를 통해 “조용기 목사의 신학은 오순절 교단 신학의 특수성에 근거한다”고 보고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후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국내외 선교뿐 아니라 한국교회

연합 운동과 섬김 사역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왔다.

이 시기(1983~1992)는 기독교 인재양성의 틀을 다지는 때이기도 했다. 90년 순복음신학교가 정규대학으로 승격되고, 97년 한세대 학교로 교명을 바꾸기까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물질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펼친 다양한 선교사역의 핵심엔 조 목사가 평생 전한 오중복음(중생, 성령, 신, 유 축복, 재림), 삼중축복(영적, 물질적, 육체적 축복), 4차원 영적세계(생각, 꿈, 믿음, 말)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1:2)라는 전인구원의 메시지로 요약된다. 조 목사가 60년간 전한 실천적 메시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질병과 삶의 무게에 짓눌린 수많은 메마른 영혼들에게 ‘단비’처럼 다가왔다. 강력한 전인구원의 메시지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에 더욱 확산됐다.

민경배 백석대 석좌교수는 조 목사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했다. “조 목사는 교회 조직이 그 다음 세대로 후속된다는 사실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체험적 신앙과 교회 조직의 두 실체가 묘하게 교통하고 융합하는, 아주 독특한 기독교 신앙의 모델을 한국에 구축했다. 교회제도가 신앙에 필수적이라는 관행을 체험신앙에 합류시킨 신학과 목회의 광활함을 조 목사에게서 볼 수 있다. 이런 포괄성 때문에 조 목사의 메시지는 사회적 계층이나 나라와 민족, 시대나 지역과 상관 없이 관통하면서 문자 그대로 파급될 수 있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기뻐하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갖가지 생물들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으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셨는데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은 그야말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1.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사건

그런데 그 기쁨을 깨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세기 2장 16절-17)"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선악과는 스스로 주인이 되게 하는 과실인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의미이고 '악하다'는 말은 나쁘다는 의미인데 선악과를 따 먹으면 '좋다'와 '나쁘다'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주의 절대 주인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주인 노릇을 하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을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빈 집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한 가정일 수도 있고, 사회나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빈 집에는 좋은 주인이든 나쁜 주인이든 주인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오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고통을 당하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5~17절)

고 결국 파멸하고 마는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폐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세기 3장 15절)"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류의 죽음을 철폐하시고 진정한 생명을 복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러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길을 찾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저마다 진리의 길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길이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아무리 빨리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와도 정해진 길로 뛰지 않으면 실격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잘못된 길을 달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 오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고 또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오면 출소할 때 죄수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옷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죄

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았으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보혈로써 값 주고 사신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3. 오중복음은 에덴의 회복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오중복음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 살 때는 죄가 없었고 더러움도 약이 없었고 질병도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없었으며 죽음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에덴에서 누렸던 의와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 건강과 치료와 풍요로움,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중복음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생활 하던 60년 동안에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험벗고 굶주리고 환경이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천막교회에 가마니를 깔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춤고 덥고 굶주렸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샘이 넘쳐났고 이로 인해 행복했던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태복음 7장 9절~11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슴속에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늘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베푸어 주신 오중복음을 삼중축복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의 말로 선포 하셔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에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돌아보는 해외성회 하이라이트 "2012년 대만 성회"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희망 목회'는 대만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만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조용기 목사의 제자'라고 강조하는 장마오송 목사가 타이페이시에서 2000석 규모의 새성전을 헌당하며 2012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했다. 신띠엔 성타오교회는 대만에서 대표적으로 부흥한 최대 교회로 꼽히는 교회다.

2012년 12월 8일 신띠엔 성타오교회 새성전에서 열린 헌당예배는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 왕젠쉬안 대만 감찰원장 그리고 이 교회 41개 지교회 및 협력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예배에서 장마오송 목사는 '조용기 목사는 나의 스승'이라고 말하며 설교자로 초청된 조용기 목사를 소개했다. 강단에 오른 조용기 목사는

바로 장마오송 목사 내외를 부른 후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하며 신띠엔 성타오교회가 최대 교회가 될 것을 기도했다.

이날 조용기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건을 전하며 "세상은 광야와 같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설명했다. 조용기 목사는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나올 때 인생의 쓴 물은 달게 변한다. 예수님 안에는 치료와 평안의 생명이 있다. 성령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며 신띠엔 성타오교회가 대만을 넘어 중국 복음화를 위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설교 후 장마오송 목사는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며 대만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 내외 그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 헌당 기념 '핸드 프린팅' 행사를 진행했다. 장마오송 목사는 이날 "조용기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다"며 조용기 목사를 통해 순복음의 영성, 강력한 기도운동을 알게 된 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마오송 목사와 신띠엔 성타오교회 성도들은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부흥성회와 입당예배를 계기로 대만 복음화는 물론 중국 대륙 복음화를 위해 더욱 헌신한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Merry Christmas
복 되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올 한 해에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기쁜 성탄과 희망차고 풍성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며 주 안에서 승리의
기쁨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총재 조용기 목사 趙錦基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모사 목사 志垣唐政